

작가 27인의 은밀한 편지 수록한 '작가들의 연애편지' 출간

## 문인들이 사랑했던 '그남자 그여자'



(김훈)



(하성란)



(박상우)



돌풍처럼 스쳐간 사내에 대한 애달픈 마음을 고백한다.

김동리는 "'시'와 '영'은 서로 사랑했다"로 시작하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쓴 뒤 '장편 소설 연애 편지'에 대한 문단의 반향'이라는 글까지 붙여 소설과 동일한 실험적인 편지를 썼다.

이 밖에 세월이 흐른 뒤 첫사랑이었던 여선생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을 담은 박상우, 병약한 고학생이었던 자신과 결혼해 준 아내에게 고 마음을 전하는 이승하,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박재현, 소설가 김지연에게 사랑과 우정을 전하는 서영은 등

비밀스럽다. 단 한 사람의 독자를 위한 '은밀한' 편지는 추억으로만 남게 마련이다.

가장 사적인 장르인 편지, 그것도 '연애편지'가 공개됐다. 김동리, 김훈, 마광수, 서영은, 하성란 등 내로라

스쳐간 사내에 대한 애달픈 마음 토로한 하성란

첫사랑 여선생에 대한 진심 고백한 박상우

:

수신자 이름에서부터 발신일까지 그대로 실려

"함께 저녁 먹으면서 한 말처럼 흐린 날도 더러 있었지만 좋은 일도 많았지? 무엇보다 결혼 10주년에 제일 선물은 내가 짜짜라 들지 않고 그나마 기를 퍼게 된 것 다행이지? 더 열심히 정진할게. 늘 만큼 늘고 싶은 팔만큼 팔았으니 이제 결혼 가려고 경주마처럼 달려도 될까? 아니 경주마까지는 싫고 고백 놓은게 주인이 좋아도 제법 제 갈 길 찾아가는 말처럼 될까? 새로운 날, 새로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네" (장성희·반철환의 '결혼 10주년 기념 편지'중에서)

글은 읽히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때로는 그 '의무'를 망각하는 글이 있다. 글을 읽을 대상이 한정된 편지가 그렇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예뻐한 감정을 담은 연애 편지라면 더욱

하는 작가 27인이 오랫동안 감춰놓은 연애 편지를 추억의 한지락에서 꺼내 온 것. 지난 200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월간 '넥스트'에 게재된 것들을 엮은 '작가들의 연애편지'(생각의 나무·9천800원)에는 수신자의 이름부터 발신일까지 그대로인 '진짜' 편지가 실려있다.

"돌풍이 분 시간은 기껏해야 삼사분, 오륙분. 그 짧은 사이에 지난밤의 평화는 깨졌고 모두가 잠든 사이에 바람이 누군가를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채 갔습니다. 그런 대기 변화처럼 제 심정을 읽어주시면 안 될까? 제가 잡자는 사이, 제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안 될까요?"

책의 첫 장을 장식하는 하성란은

순수한 사람의 감정과 문학적 표현이 돋보이는 연애편지를 만날 수 있다.

"모든, 닿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모든, 품을 수 없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모든, 건널 수 없는 것들과 불려지지 않는 것들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모든, 다가오지 않는 것들을 가까이 사랑이라고 부른다."

옛 사랑과 기억에 대한 메모장을 들춰며 썼다는 김 훈의 사랑의 관한 정의에서는 인생의 가장 황홀한 순간에 대한 찬양이 들어난다. 시간을 뛰어넘어 연애편지의 수신자가 된 자들에게는 작품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작가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픽션기자 ksj@kwangju.co.kr



오페라는 미리 줄거리를 알고 가야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인기 레퍼토리 중 하나인 푸치니의 '라 보엠'.

## 줄거리 알고 감상하면 재미 두배

光州歌劇 연중 캠페인

### 문화감각을 키우자

#### (6) 오페라 보기

다양한 문화 장르 중에서 '오페라'는 '준비된 관객'을 원하는 '어려운' 장르로 평가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좀 더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작품'이라는 뜻의 라틴어 '오퍼스(opus)'에서 유래한 오페라는 음악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문학(대사), 연극(연기), 미술(무대장치·의상)적인 요소가 결합된 종합무대예술로 뮤지컬과 달리 합창을 전혀 쓰지 않고 노래하는 게 특징이다.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한 아리아(aria)는 독창자가 부르는 선율이 아름다운 곡을 말한다. 토스카의 '별은 빛나건만' 등이 대표적. 또 작품이 시작할 때와 막과 막 사이에는 서곡과 간주곡이 연주된다. 영화 '대부' 등에 삽입됐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간주곡 등은 일반 음악회에서 따로 연주될 정도로 인기 높은 레퍼토리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3~4년 간 장엄모 감동이 연출한 '투란도트' 등 이른바 '운동장 오페라'가 많이 공연되면서 오페라가 일반인들의 관심사로 들어왔다.

광주에서는 광주오페라단, 감속자오페라단, 빛소리오페라단 등이 해마다 1~2차례 작품을 올리고 있다.

오페라를 감상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것. 공연장에 가기 전에 인터넷이나 책을 참조하고 미처 준비를 못했다면 공연장 안내 팸플릿 등을 통해 줄거리를 알고 있어야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 일부 공연에서는 자막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계속 자막만 들여다 보다가는 정작 감상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아리아를 부르는 독창자의 연주가 뛰어나거나 멋진 합창 등이 끝났을 때는 박수를 치는 것도 무방하지만 음악이 계속 이어지도록 잦은 박수는 피하는 게 좋다. 특히 '토스카' 등 주인공의 죽음이므로 막을 내리는 비극의 경우 공연이 다 끝난 후 감정의 여운을 느낄 수도 있도록 조금 늦게 박수를 치는 게 예의다.

인기있는 레퍼토리로는 흔히 '오페라의 ABC'로 불리는 '아이다' '라 보엠' '카르멘' 등이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오텔로', '돈 카를로' 등의 비극과 '세빌리아의 이발사' '돈 조반니' 등 희극을 선택해 감상하면 좋다.

광주오페라단 임혜철 단장은 "오페라 공연은 사전 지식이 많을수록 훨씬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다"며 "오페라 입문자에게는 개인적으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를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12 광주일보

제17533호 2006년 8월 23일 수요일

블랙톤에 투영된 현대인의 무의식적 일상

#### 서양화가 윤병학씨 다섯번째 개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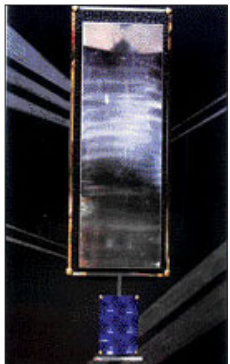
서양화가 윤병학씨가 24일까지 문화갤러리에서 '씨앗을 뿌리다'를 주제로 다섯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윤씨는 이번 전시에서 블랙톤을 주제로 한 작품을 통해 현실에 대한 괴리감과 그림, 불안감 등 현대인들의 무의식적 일상을 보여준다.

작품 'The Lonely Crowd-투영된 얼굴'은 검은 바탕의 공간에 거울을 설치, 관객들의 모습이 거울에 투영되게 함으로써 현대인들의 무의식 속의 감춰진 자아를 찾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윤씨는 전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현대미술초대전, 이탈리아 현대미술초전에 참가했다.

/윤병학기자 penfoot@kwangju.co.kr



'The Lonely Crowd - 투영된 얼굴'

### 동네 명물 디카로 찰칵 하세요

####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 '포토 콘테스트'

디지털 카메라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풍경, 아름다운 자연 풍광, 흥겨운 문화현장 등을 담아보면 어떨까.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찰칵! 찰칵! 디카맨의 문화 잡기' 포토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12월까지 계속되는 이번 콘테스트는 매달 하나의 테마를 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8월의 테마는 '우리동네 풍경을 찾아라'로 골목길, 우리 동네 명물 등 자신의 동네가 담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 문화중심도시홍보관 홈페이지(http://pr.cct.go.kr)에 응모하면 된다. 마감은 오는 31일까지며 지역에 관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입상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증정하며 입상작은 홈페이지와 옛 전남도청앞에 자리한 홍보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문의 062-230-01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Have a Nice Green Tour!

남도고시엔터 | TEL:062)225-5544, FAX:062)225-5542

- 남주 신장동 G/B 빌800평
- 남주 은곡농공단지 1030평
- 장흥유치 대천(전·답·임야)
- 진일빌APT입구 신가부지 380평
- 남주 남평 서산(드림강원원지)
- 광주대학 입구 신가 233평 매도
- 남주 은곡동(자연녹지) 임야 3840평
- 남주 평산리 배밭 1850평
- 기든 및 전원주택부지 1200평
- 안파동 G/B 5997평 매도

문의전화: 061-373-9955, 1577-2633, 02-734-2700, 061)320-7800, 320-777, 3700, 063-560-2000

### 7.9 공무원 경찰직 공개고시

- 서울시: 10월1일 932명 공채대비
- 신관위: 9월24일 100명 공채대비
-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 일반경찰, 해양경찰, 101단경찰반
- 정규이론반 문제풀이반
- 경찰시험전문 강사로 100% 합격목표
- 9월 최종정리반(핵심요약+문제풀이)
- 9월 1개월간 전과목 정리
- 10월 개별학습의 극대화

###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광주동부서취 (062)222-5105

www.Chonnamgosi.co.kr

### 정우부동산

남주 신장동 G/B 빌800평

### 한국공인중개사

장성지역

### 등지공인중개사

등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 빛고을랜드공인중개사

비전있는 남주, 지금이 있는 최적이입니다

### 아름다운부동산

상가건물

### 국민공인중개사

건물

### 동림2지구공인중개사

동림2지구 임대

### 대지공인중개사

구합니다